

“이웃과 자연의 소중함 배웠어요”

범종교 어린이 ‘숲속의 학교’ 열려

“스님, 신부님, 목사님들과 함께 물놀이도 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발우공양도 해보니 너무 재미 있어요.”

이런 말이 급하고 화를 잘내 선생님께 꾸민다. 들었던 현식(구봉초·4)은 범종교장 범명스님(가운데)에서 보낸 며칠새 많이 달라졌다. 담임 선생님을 찾아와 ‘실망시켜 죄송하다’는 반성을 한 이후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모든 것에 열심이다.

13일부터 17일까지 울산 삼동배내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숲속의 학교에 참석한 다른 어린이들도 대부분 현식(가운데)와 비슷한 체험을 했다.

불교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 천도교의 젊은 성직자 단체인 열린 종교인모임에서 ‘열린 교육, 열린 학교’를 표방하며 시작한 숲속의 학교에 참석하면서 이웃 종교에 대한 벽을 허물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열린 마음을 배웠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3~6학년 57명이 참석한 올해

숲속의 학교 주제는 ‘자연과 하나되기’. 주제별로 만남의 날, 놀이의 날, 우리 것의 날, 다짐의 날로 나눠 숲 속의 동화나라, 자연관찰학습, 자연명상, 물놀이, 다도, 발우공양, 숲 속 거닐기, 전래놀이, 우리노래와 춤 배우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5대종교 초등생 57명 참가

명상·발우공양·전래놀이

종교 넘어 열린마음 체험

총괄 실무를 맡은 원불교 최형철 교무는 “올해는 자연 친화적인 감성을 살려내고 우리문화의 멋과 향기를 찾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자연 속의 놀이를 통해 자연과 더불어 하나되는 교육적 효과와 풍부한 자기 표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열린 종교대안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숲속의 학교’에서 발우공양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숲속의 학교는 대안학교 가운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학교로 종교를 초월한 보편적인 진리를 전하며 종교간 벽 허물기의 시기가 어릴수록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5개 종교의 젊은 성직자들이 직접 교사로

활동하는 숲속의 학교는 종교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을 하던 초창기 방식에서 탈피, 문화나 놀이 등의 간접적 방법을 통해 각 종교의 공통 가치를 터득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종교간 이해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울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a.com

카암련 회장에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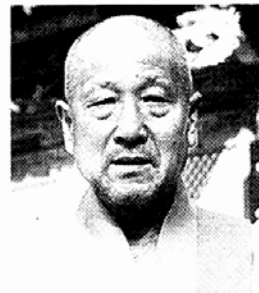
포교거점 불교회관 추진

원주사암련 일휴스님

인구 30만명의 군사도시인 원주시. 2000년도 통계에 따르면 95개 사찰에 128명의 스님, 3만2천여명의 불자가 있는 이곳은 개신교, 천주교와 교세가 비슷하지만 도시 규모에 비해 불교활동이 왕성한 편이다.

1980년 창립되어 준회원 사찰 70개 등 120여 회원사찰로 구성된 원주불교사암련연합회 회장 일휴스님(가운데)은 “올 부처님 오신날 이후 제 10대 회장에 선임돼 지난 달 30일 취임식을 가진 일휴스님은 “원주 불교의 한단계 도약을 이루기 위해 모든 종단의 회원사찰이 협력, 복지불사를 강화하고 군사도시의 특성을 살리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불교가 되도록 지역 현안에 관심을 기울여”고 말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현재 평원동에 임대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원주불교회관을 자체 사옥으로 건립, 지역 불교의 신행·복지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운전불자회, 개인택시 연동회, 정각회, 성불회, 여성불교회, 자비회, 청년회, 제조장법우회 등 신행단체연합회 산하 단체들이 불교회관에서 자유롭게 정기법회와 모임을 갖는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자원봉사 및 복지센터를 갖춰 포교의 전초 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신행단체들이 불교회관을 중심으로 소적새마을,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시립복지원, 강원도 자연학습원 등 불교계에 운영되는 복지시설을 인적 재정적으로 후원해 강원 불교복지의 저변을 확대하고 1군사령부, 26사단, 공군부대 등 군법당들과 연계해 군포교 지원체

계도 갖출 방침이다. 일휴스님은 이런 토대위에 올 부처님 오신날 처음으로 개최한 제1회 불교연합합창발표회를 정례화하고 원주교도소 합동법회도 확대해 불음전파를 통한 재소자 교회에도 나설 계획. 아울러 원주시와 원주문화원이 추진해 온 원주 문화재 반환 운동에도 동참,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중인 국보급 문화재를 역사의 현장에 되살리고 법전사지 등 폐사지의 성보를 지키는 일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원주=김재경 기자



봉원사 16 나한상 봉안

“남북통일·불교중흥 발원”

태고종 봉원사주지 인공은 13일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6 나한상(사지) 봉안식을 거행했다.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1년만에 건립된 16나한상은 높이 150cm 높이로 범당

앞 아외에 나란히 세워졌다. 봉원사 주지 인공스님은 점안식에서 “지난해 중국 구화산을 성지순례 했을 때 백세공의 오백나한을 친견하고 감응을 받아 16나한상을 봉안하게 되었다”면서 “16나한 봉안의 공덕으로 남북 평화통일과 불교중흥이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10만명 방죽서 영산재등 다채

24~28일 제5회 무안 연꽃축제

백년 군락지로는 동양에서 가장 넓은 10만여평의 화산 연꽃방죽에 연꽃들이 손짓한다.

전남 무안군(군수 이재현)은 문화관광부와 무안군 불교사암련연합회(회장 경훈), 한국관광공사 후원으로 8월 24~28일 일요일 화산 연꽃방죽에서 제5회 연꽃축제를 펼친다.

24일 오후 7시30분 기원제, 축제축하공연, 불꽃놀이 등 전야제를 시작으로 5일간 진행되는 무안 연꽃축제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전시회, 관광객 참여 행사로 꾸며진다. 이 가운데 불교관련 행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2002 월드컵 개최 성공기원 수록 영산재=27일 오전 10시30분 주무대, 바라춤 나비춤 등 법패공연 ▷불교영화전시=25~28일 부스 ▷연꽃만들기 및 전시=25~28일 부스(정명스님 주관) ▷사찰음식전=25~28일 부스 ▷발우공양=25~28일 부스 ▷불교경전 사경 및 탁본=25~28일 부스 ▷연향차와 초의선사 다도체험=25~28일 부스(무안문화연구원)

문의=(061)450-5226

김재경 기자

불교전문 수행학교 연다

부산불교교육원 9월부터

대중불교 교육기관으로서 올해로 개원 13년째를 맞은 부산불교교육원(원장 성재도)이 제1기 불교수행학교를 개설한다. 그동안 기초 경전교육과 참선, 포교행사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교육원이 ‘수행전문 교육기관’을 내세우며 의욕적으로 시작하는 행사다. 교육기간은 9월 첫째주부터 12월말까

지 4개월간, 주·야간으로 나뉘어 주간반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야간반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교육이 시작된다.

교육내용은 ‘불교의 인생관’에서 ‘불자의 사회참여’까지 개인의 수행에서 사회적 참여문제까지 폭넓은 주제를 담고 있다.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불교예절과 사찰구조, 기초교리 등에 대한 특강도 마련된다. (051)466-4080.

부산=천미희 기자

광양 옥룡사 복원 역사교육장 만든다

도선국사 석관묘 등 발굴

KBS 대하드라마 태조 왕건에서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유서깊은 사찰 옥룡사. 도선국사와 통진대사(경보스님)가 주석한 백제산 옥룡사가 최근 학술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 이 곳을 찾는 학자들과 관광객의 발걸음이 크게 늘고 있다.

광양시는 이렇듯 당시 백제불교의 중심이었던 옥룡사(사적 제407호)의 전체 복원을 위해 사적지 5만5천여평 중 4만8천여평의

사유지 매입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진입로 확장과 주차장 시설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미 지난 1994년부터 대대적인 발굴작업을 추진, 정밀 지표조사와 함께 세 차례에 걸친 발굴을 통해 도선국사의 유골이 안장된 석관묘와 도선국사와 통진대사의 쌍비 쌍탑 부도전을 찾아 냈다.

신라말 창건된 옥룡사는 도선국사가 864년 중수한 사찰로서 1878년 화재로 소실된 후 폐찰 되었으며, 현재 서 있는 대웅전은 1969년에 건립된 것이다.

김재경 기자

마야문화원 가을 강좌

마야문화원(원장 김문영)이 9월 8일부터 가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회원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삼천사혈요법 △요가 △임산부요가 △도자기교실 △역학교실 △잡을 기차게 질하는 법 △영역명상 △애니메이션 워크숍

등이다. 이중 새로 개설된 ‘애니메이션 워크숍’은 고대 수피 문헌자들 사이에서 비전되어 내려온 것으로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일깨우는 탐사프로그램이고 ‘임산부요가’는 임산부의 건강과 튼튼한 아기를 낳을수 있도록 하는, 임산부를 위한 요가체조를 가르친다. (02722-1050) 이경숙 기자

“佛의 높낮이 조절 및 설치, 해체가 용이하고 바람에도 지탱되도록 설계”

철여번(7번) 치수 36cm x 140cm
아이더번 52cm x 200cm
인로왕번 52cm x 200cm
오방번(5번) 치수 50cm x 200cm
삼신번(8번) 치수 52cm x 220cm
보고번 52cm x 220cm
지장번(9번) 52cm x 220cm
항아번 52cm x 220cm
원왕성번 52cm x 220cm
시왕번(10번 11번 12번) 치수 23cm x 125cm

번의 글씨체는 불·보살의 상호와 같으므로 가장 중요합니다.

佛敎傳統儀式具

전통번 제작기법 그대로를 재현한 외제작

佛·菩薩의 무량한 공덕을 나타내는 번(幡)과 연(竿)은 우리 불교 문화예술의 꽃이며, 전통적인 불교장엄의식의 한 형태로서 불가의 일상생활에서 법회나 각종 재를 지내고 의식을 거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아주 장엄한 불교문화 유산입니다.

靈山齋保存會에서는 전통의식구 그대로를 재현한 장엄일체를 보급운동하오니 이 기회에 소장하시길 바랍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장 차인공 합장

장엄 의식구 자료가 필요하면 무료로 우송하여 드립니다. 대법회·낙성식·49재·천도재·예수재 영산재·수륙재·각종행사

제작보급/영산재보존회부설 불교전통장엄연구원·문의전화/(대)02)396-5070·보존회(02)392-3007